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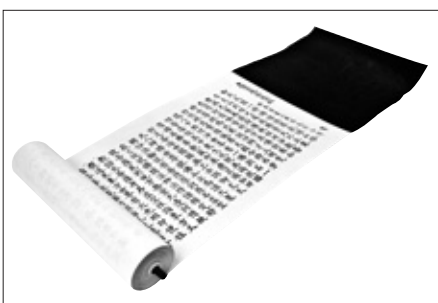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혜덕왕사 소현 (慧德王師 韶顯: 1038~1095)

승려의 본분을 지켰던 왕사

소현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유식 관련 주석서들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스님은 금산사에 주석한 초기에 금산사 남쪽 60걸음 가량 떨어진 곳에 광고원(廣敎院)을 창건하고 유식종(唯識宗)에 관한 각종 경론을 판각해 광고원에 보관했다. 비문에 의하면, 스님은 태강 9년(1083년)부터 임적하는 1095년 무렵까지, 자은 대사 규기가 지은 <법화현찬>과 <성유식론술기> 등 32부 353권의 장소(章疏, 경전과 논서에 대한 해설서. '교장敎藏'이라고도 부른다)를 구해 그 판본을 교감하는 한편 각수(劄手)를 모아 판각했다. 이에 더해 스님은 개인적으로 종이와 먹을 갖추어 인쇄해 유통시킴으로써 널리 범보시를 행했다고 한다.

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73년 <거란대장경>이 전해지면서 고려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간행했던 대장경을 대부분 구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고려는 고려조조대장경의 완성을 재촉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장' 구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1073년에 의천은 '세자를 대신해서 지은 교장을 모으기를 발원하는 소[代世子集敎藏發願疏]'를 부왕인 문종에게 올렸는데 이는 불교계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조조대장경 복원간행본. 고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간행했던 대장경을 대부분 구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고려는 조조대장경 완성에 재촉을 가하고 의천·소현 스님이 대장경 조성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유식 관련 주석서 모아 간행
법상종 소현, 화엄종 의천은
조조대장경 조성사업에 큰 역할

산사를 택한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야흐로 일생을 기약하여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참된 가르침을 널리 전하였는데, 이제 스님께서 임적하셨으니, 나는 누구와 함께 전할 것인가.' 스님이 임적한 후 의천 스님이 지은 제문의 일부인데, 두 분 스님의 관계를 가히

집작할 만하다. 스님은 유식종의 장소를 간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유식종의 조사와 법통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특유의 신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찍이 스님은 광고원 안에 별도로 금당(金堂)을 두고 노사나불과 중국 법상종의 조사인 현장(玄奘)·규기(窺基) 두 스님의 존상을 봉안해 도솔천 내원정도에 나기를 발원하며 규기 스님의 행적을 늘 흠모해 잊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자씨(慈氏, 미륵불)의 행화를 그려 봉안한 소현 스님은 1075년부터 임적할 때까지 22년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7월 14일에 법회를 열어 종도들을 모아 예참하고 귀의한 후에, 크게 제(齋)를 베풀어 보시했다. 이는 이른바 미륵불 맹화불사인데, 훗날 법상종 사원의 조사맹화 봉안으로 이어진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중교화와 구제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도 승려의 길이요,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가일층 수행에 진력하는 것 역시 승려의 길이다. 그리고 스님처럼 교단의 종조법통을 세우고, 법식을 정비하며, 의지해야 할 전적을 정비하는 것 또한 승려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길일 터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화엄종의 조사 묘에 상인(明惠上人) ㉔

끓주린 늑대 위해 몸 내주기도

밀교에도 깊이 심취한 그는 어느 날 강에서 말을 씻기고 있는 마부가 "아시 아시"하고 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들었다. 묘에는 이를 "아지아지"로 듣고, 그 말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지(阿字; 일본어로는 아지라고 발음함)라고 생각해 "지금 당신이 아지 아지라고 한 것은 매우 고마운 말입니다. 그 말은 어느 분의 말입니까?"하고 물었다. 마부는 당시 궁중 경비를 맡은 관리의 직책인 부생(府生)님의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묘에는 "아, 이것은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 府生와 不生의 발음이 후소로 같음)이 아닌가"하며 감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부와 말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아자본불생이라는 말은 일체언어의 근원인 동시에 일체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밀교의 중요한 교의에 해당한다. 묘에가 얼마나 불도에 깊이 불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



코잔지(高山寺) 세키스이인(石水院), 국보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묘에는 밤이 되자 자신의 꿈을 기록한 <몽기(夢記)>를 남긴 것이다. 이를 분석한 카와이 하야오(河合隼雄)에 의하면 당시 승려들에게 꿈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하는 계기를 주었다.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2~3 세기에 이미 원체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체험이 꿈의 형태나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묘에의 기록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밀교 수행이 동물과 소통케 해 순수한 마음이 영적인 힘 키워

화인 것이다. 묘에는 모든 현상이 삼계 유일심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밀교 수행은 그가 새나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게 했다. 묘에는 어느 날 밤 수행 중 눈을 크게 뜨고, 큰일이 났다며 지금 밖에까지 새끼가 뱀에게 먹히려고 하니 도와줘야 한다고 외쳤다.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며 그가 가리킨 곳에 가보나 정말로 큰 구렁이가까지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봉 스님은 <화엄경>의 평생토록 공부해도 스스로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출가 후 대발심의 동기가 되었다. 또 만해 스님이 통도사 강사일 때 <화엄경>을 보았고, 깨달음도 <화엄경> 범회도중이었다.

묘에의 독특한 점 중의 하나는 40년 가량 자신의 꿈을 기록한 <몽기(夢記)>를 남긴 것이다. 이를 분석한 카와이 하야오(河合隼雄)에 의하면 당시 승려들에게 꿈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하는 계기를 주었다. 현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2~3 세기에 이미 원체현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체험이 꿈의 형태나 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묘에의 기록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묘에는 만년에 일단의 승려 조직을 결성해 관행(觀行)과 강경(講經)을 행하며, 화엄밀교의 교의와 수행법인 소위 불광관(佛光觀)을 완성했다. 그의 여러 저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나라 이얼론까지 새끼들을 구해냈다. 묘에는 이처럼 동물만이 아니라 나무 돌 풀 달과도 마음이 통하는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힘을 체득했다.

사상적으로 불법의 회통과 종합성을 중시하는 구불교 교단에 속했던 묘에는 사회의 격변기에 이러한 정신에 바탕한 대승정신을 온 몸으로 체현하고 실천한 조사였다. 불법의 참된 의미가 시공을 넘어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사 중에서도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화엄산림결사는 경봉스님에 의해 1927년 12월 극락암에서 화엄산림법회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통도사에서 1년 행사중 비중있는 법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봉 스님은 <화엄경>의 평생토록 공부해도 스스로의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을 출가 후 대발심의 동기가 되었다. 또 만해 스님이 통도사 강사일 때 <화엄경>을 보았고, 깨달음도 <화엄경> 범회도중이었다. 이와 같이 선사들이 면서도 다양한 분야로 중생구제에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 수 있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됨을 느낀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경 봉 스님이 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야반삼경에 대문 빛장을 만져 보거라

1982년 7월 17일(음력 5월 27일) 91세의 경봉 선사는 미질을 보여 문도들을 불렀다.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명정 스님은 "스님! 가신 뒤에 뵈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 모습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주위를 둘러 본 뒤 말했다.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빛장을 만져 보거라." 이처럼 경봉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생생한 '화두'를 제시해 수행의 길에 서게 하는 자상함을 보였다. 평생을 수행하면서 간화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했던 선지식이였다. 경봉 스님의 법문에서 소염시(小簾詩)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자주 소옥이를 부르지만 소옥에게는 일이 없다. 다만 남궁에게 들어오라 알리는 소리

일 뿐' 이 시에 얽힌 고사가 참 재미있다. 양귀비가 밤으로 자주 그의 몸종 소옥이를 부른다.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실은 그의 정부(情夫)인 안록산을 부르는 암호로서 "소옥아 소옥아" 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승을 소염시라고 하는데, 오조법연(五祖法演, ~1104)스님이 객과 이 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원오극근(圓悟克勤, 1063~1135) 선사가 도를 알았다. 이처럼 몸종을 부르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록산에게 자기가 거기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화두도 마찬가지로 제자가 그것을 도구로 하여 본래면목을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있다. 경봉 스님은 이러한 '소염시'에 얽힌 고사를 통해 대중에게 화두를 통한 수행, 즉 간화선(看話禪)으로 제도를 했다. 올해 1월부터 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5대 결사(結社)를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경봉 스님도 이러한 신앙결사를 주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만일참선결사와 만일염불결사 그리고 화엄산림결사다. 만일참선결사는 1926년 통도사 내원암에서 용성 스님의 '만일참선결사'를 옮겨와 시행한 것을 말한다. 이는 황구참선(誦句參禪)이 주된 간화선 수행결사로서 멀리 고려 보조지눌 스님 수선사(修禪社)의 정혜(定慧)를 함께 닦는 결사를 계승하고 있으며, 가까이에는 경허 스님이 주도한 정혜결사를 잇고, 이후 성철 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로 이어졌다. 만일염불결사는 경봉 스님이 1925년 10월 통도사 극락암에서 '양로염불만일회'를 결성해 회장직을 맡아 재가불자들을 지도했다. 이는 타방정토(他方淨土)자원의 중생교화로 볼 수 있는데, 당시 만일염불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1년 9월 중
◆개강일시: 2011년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약간명)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선착순)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교과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응시기간 : 9월 30일까지(10월 10일 개강예정)
▶ 응모방법 : 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 031)753-7377